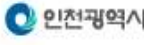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3일(수) 총 7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자원재활용팀장 홍 성 이 ☎440-3571 • 담 당 자 윤 신 원 ☎440-357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쓸모를 찾아서”  
인천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확대 시행**

- 3월 3일 인천시, 5개 자치구,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업무협약 -  
 - 커피전문점 600개소 확보를 목표로 연간 660톤의 커피박 재자원화 -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모델의 기반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와 5개 자치구(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현대제철(대표이사 안동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직무대행 이규현),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단 2%만 사용되고 98%는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활용하여 제품화 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적 가치 창출은 물론 공공 시스템 안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사업 정책 지원 ▲5개 자치구는 커피전문점 모집 및 수거 ▲현대제철은 기금 출연과 재자원화 기업 발굴 ▲한국생산성본부는 지역자활센터와 재자원화 기업을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환경재단에서는 커피박 인식 개선과 홍보를 추진하고, ▲커피박 재활용업체는 지역자활센터에 상품 생산기술 전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중구, 미추홀구의 커피전문점 119개소를 대상으로 커피박 55톤을 수거하여 재자원화를 추진했으며, 특히, 참여 커피전문점에는 ‘에코카페 스티커’를 배포하여 방문하는 손님에게 친환경 자원순환 업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됐다.
- 금년에는 참여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5개 자치구의 커피전문점 600개소 확보를 목표로 연간 660톤의 커피박 재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모델의 기반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 앞으로 인천시는 관내 지자체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여 커피박 수거에서 재자원화의 지역 자생적 모델을 인천시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민·관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협약문안 1부

2. 커피박 수거 및 재자원화 진행 과정, 커피박으로 만든 제품,  
에코카페 인증 스티커

# 협약서 [안]

##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버려지던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재자원화 하기 위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뜻을 같이하며, 사업기간 동안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증가하는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역할)** 협약 당사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상호 역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1. 인천광역시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소속 군구에 사업 진행과 관련된 공통 방침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각종 사항을 협조한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수거하여 커피박 재자원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으로부터 커피박을 수거, 재활용처리장까지 운반 및 보관하여 커피박 재자원화 기업 및 파트너 지역자활센터에 상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커피박 배출을 위해 참여 커피전문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현대제철㈜는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운영 비용을 회사의 계획에 따라 제6조에 설정한 기간 동안 재원을 출연/지원한다.
4. 한국생산성본부는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커피박 재자원화 기업을 발굴하고, 재자원화 모델을 지속 개발한다.
5.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관 내 커피전문점의 참여 유도과 함께 캠페인, 대외 홍보, 성과 공유회(컨퍼런스)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제고한다.
6.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3조 (업무 협조 등)**

1. 협약 당사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협약 당사자간 상호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정부 또는 사법기관)에는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4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9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처리시설 운영 불가, 커피박 재자원화 여건,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활용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 당사자 간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5조 (협약의 변경 등)**

1.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협약 당사자간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6조 (협약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

1.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 협약 당사자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협약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본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인천광역시 및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커피박 재자원화 시스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 현대세철㈜, 한국생산성본부,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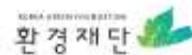
시장 박남춘



대표이사 안동일



회장 직무대행 이규현



이사장 최열



구청장 홍인성



구청장 김정식



구청장 이강호



구청장 차준택



구청장 이재현

## 참고1

## 커피박 수거 및 재자원화 진행 과정



## 참고2

## 커피박으로 만든 제품

화분	
	
벽돌	
	
연필	점토
	

### 참고3

### 에코카페 인증 스티커

